

국문요약

본 연구는 라오스 교육분야 개발협력방안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현재 진행 중인 우리나라 라오스 CPS(2013-15)의 교육개발협력사업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2016년 이후의 라오스 CPS 수립에 필요한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대상으로 라오스를 선정한 이유는 무엇보다도 2012년 현재 평균 교육연한이 4.6년으로 경제사회 발전을 제약하는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라오스 국가협력전략 2013-2015(국제개발협력위원회 2013)」의 중점협력 분야로 수자원 및 전력 등과 함께 '인적자원개발'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배경하에 본 연구에서는 라오스와의 교육분야 개발협력방안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세계은행, ADB 등의 국제기구의 발간 자료와 라오스와의 교육협력에 관한 연구자료 및 선행연구를 분석하였다. 이외에도 라오스의 교육분야 개발협력 수요를 파악하고 최신 자료와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하여 라오스 출장(2014년 7월 5~12일)을 통해서 교육 및 직업훈련 부서, ODA 담당부서의 정부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면담을 실시하였다.

이상과 같은 방법으로 작성된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장별로 다음과 같다. 제1장에서 연구의 목적과 배경, 방법을 제시하였고, 제2장에서는 라오스의 개발계획과 교육분야 개발수요를 조사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사회주의 국가인 라오스는 1986년 이후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 탈바꿈을 하는 개혁개방 정책을 통해서 2010년 이후 연평균 7% 이상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하였고, 2011년 저소득 국가 그룹을 벗어나 저중소득국(Lower-Middle Income Country) 그룹에 진입할 수 있게 되었다(World bank 2011, p. 1). 이러한 변화의 추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라오스 정부에서는 2015년까지 1인당 국민소득 1,700달러를 달성하고, 2020년까지 현대화와 산업화, 사회경제 발전을 목표로 제7차 국가사회경제개발계획(2011-2015년)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목표가 실현될 수 있도록 우리나라가 라오스와의 교육개발협력을 추진함에 있어서 라오스 사회 전반의 수준을 끌어올리는데 필요한 인적자원개발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한 방안을 수립하기 위해서 라오스의 교육 및 산업·고용 통계, 라오스 정부의 발전계획 및 교육개혁 그리고 선행연구들을 분석한 결과, 초중등교육, 특히 초등교육과 전기중등교육에 관한 개발수요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라오스의 기초교육 수준이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들 보다 열악하기 때문이다. 그 다음으로 아직은 개발 정도가 취약한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잠재적 수요가 큰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적된 바와 같이 라오스의 경우 고속련 및 중급 기술자의 비율이 주변 개도국인 캄보디

아, 몽골, 파키스탄, 필리핀, 베트남 등 보다 낮은 문제가 있다. 마지막으로 라오스의 경제성장과 더불어 날로 확대되고 있는 고등교육 개발수요를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과거에 비해 라오스의 초중등교육이 전체적으로 개선됨에 따라 최근에 와서는 고등교육 부문에 대한 국가사회적 수요가 현저하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수요의 변화는 우리나라의 라오스 교육개발협력 방안을 수립할 때 중요한 요소로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제3장은 라오스에 대한 국제사회의 교육개발협력 현황을 조사하고 ADB 등의 지원 현황과 주요 공여국(독일, 일본, 호주)의 교육분야 개발협력 사례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2008~12년 동안 라오스에 지원된 총 ODA 중 교육 분야에는 13.3%(54.66백만 달러)가 지원되었다. ADB와 World Bank 모두 라오스 국가협력전략(CPS)을 수립하여 개발협력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중점 지원 분야는 다소 차이가 있다. World Bank의 경우 저소득층 및 소수민족 거주 지역의 초등교육 기회의 확대와 질적 제고에 집중하고 있는 반면에, ADB는 라오스의 중등교육과 고등교육 및 직업교육훈련에 역점을 두고 있다. 그리고 국제사회의 공통 목표인 EFA를 실현하기 위해 2002년에 시작된 다자 ODA 프로그램인 「글로벌 교육협력사업(GPE: Global Partnership for Education)은 EFA 실현을 위한 유아·초등교육사업 외에도 2015년 이후의 과제인 중등교육의 확대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 한편 일본, 독일, 호주 정부는 '인적자원개발'이 라오스 경제사회 발전의 핵심동인이라는 전제하에 교육개발협력을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공통점이 있으나, 중점 지원 영역은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일본은 기초교육 영역 중에 과학과 수학 교사의 역량 개발과 IT 및 법률과 관련된 인적자원개발에 집중하는 반면에, 독일은 자국이 강점을 가진 직업교육훈련을 통해서 숙련된 근로자를 육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그리고 호주의 경우 라오스 초등교육의 질과 접근성을 개선하고 낙후 지역에 거주하는 여성과 소외계층 및 장애아의 교육기회의 확대에 주력하는 특징이 있다.

제4장은 우리나라의 라오스 교육분야 개발협력 실적을 지원기관별(KOICA, EDCF, 교육부 등)로 상세히 서술하였다. 분석 결과, 최근 5년 동안(2007-11년) 라오스에 지원된 교육개발협력 예산은 23.12백만 달러로, 유무상 지원(집행 기준)을 모두 합쳤을 때, '식수 공급 및 위생(29.95백만 달러)' 다음으로 '교육(23.12백만 달러)'이 두 번째로 많은 편이다. 개발협력기관별로 라오스의 교육분야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KOICA의 경우 2002-12년간 교육 ODA 중에 중등교육에 69.2%로 가장 많이 지원했으며, 그 다음으로 직업교

육훈련(25.6%), 아세안 이러닝 사업(4.2%), 초등학교 건립 사업(1%)의 순으로 지원하였다. EDCF의 경우 2004년에 이루어진 「수파누봉대학교 설립 사업(2,270만 달러)」이 유일한 라오스에 대한 교육차관 사업이다. 그리고 교육부의 경우 여러 국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초청장학생 사업, 글로벌 교육지원 사업, 이러닝 세계화 사업, 아세안사이버 대학 설립 사업 등을 통해서 라오스를 부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라오스 교육개발협력사업은 주변국인 베트남과 비교할 때 지원 규모나 활성화 정도가 미흡한 편이다. 아울러 교육개발협력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여러 가지 이슈를 가지고 있었다. 무엇보다도 중장기적인 라오스 교육분야 개발협력계획 없이 한-라오스 정상회담 등에 의해서 개별 사업들이 단발성으로 추진됨으로써 해당 사업이 종료되면 사업 효과도 제약되는 문제가 있었다. 아울러 다른 개도국에서와 마찬가지로 체계적인 성과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라오스 중등학교 교과서 지원 사업, 한·라오스 직업훈련원 건립 사업, 수파누봉대학교 설립 사업 등과 같은 대표적인 라오스 교육원조사사업 모두 사업계획에 성과관리 계획이 포함되지 않았고, 그에 따라 사업 종료후에 체계적인 성과 측정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특히 EDCF가 막대한 차관(2,270달러)을 투여하여 설립한 수파누봉대학교의 경우 오랫동안 방치되다가 2014년부터 시설보수 등의 후속 지원이 KOICA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외에도 라오스 교육을 지원하는 외국원조기관들이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과의 긴밀한 협조와 공조 없이 국내 개발협력기관의 독자적인 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되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문제는 라오스에만 한정되지 않으므로 우리나라 교육분야 개발협력사업의 효율성 제고 차원에서 다각도로 해법이 탐색되어야 할 것이다.

제5장은 제2~4장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2016-2020 라오스 국가협력전략」에 포함될 수 있는 라오스 교육분야 개발협력 방안을 제안하였다. 라오스 교육분야 개발협력의 목적으로 '단계적 원조 확대를 통한 라오스의 교육발전 목표 실현 지원'을 제안하였고, 추진전략으로는 ① 단계적 사업 추진 ② 원조 중복의 최소화 ③ 우리나라 원조 경험의 적극적 활용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교육개발협력사업의 운영원칙으로 ① 체계적인 수요조사 ② 증거기반(evidence-based) 사업 추진 ③ 파트너십의 활성화 ④ 체계적 성과관리 원칙을 제안하였다. 중점 사업영역으로는 중등교육, 직업교육훈련, 고등교육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이 중점 사업영역에서 초등교육을 제외한 이유는 라오스의 경우 이미 초등교육 등록률이 95% 이상을 상회하고 있고 초등교육의 질적 개선을 위해서 일본과 호주에서 이미 많은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검토 과정을 거쳐서 중점 사업영역별로 국내 개발협력기관들이 실제 적용할 수 있는 라오스 교육분야 개발협력 프로그램들을 예시적으로 제시하였다. 이들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준들을 적용하였다. 첫째, 라오스 정부가 「제7차 국가사회경제개발계획 2011-2015」의 교육 부문 계획에서 강조하는 중등교육과 직업교육훈련의 발전을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선정하였다. 둘째, 「교육부문 개발계획(ESDP) 2015-2020」의 실현과 관련하여 외국원조기관들의 지원 계획과 중복을 최소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선정하였다. 셋째, 라오스 및 기타 개도국에 대한 우리나라의 교육개발협력사업 경험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선정하였다. 넷째, 라오스에 대한 우리나라의 원조 경험이 일천한 점을 감안하여 교육영역별로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갈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선정하였다.

이상의 기준들을 토대로 라오스 교육개발협력의 영역별로 제안한 중점 개발협력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우선 「중등교육」과 관련해서는 총 5개의 프로그램(중등학교 교과서 지원 사업, 한·ADB 중등교사 재교육 사업, 한·ADB ICT 교사연수 모델 개발 사업, ICT 활용 교사연수 사업, 교육정보화 선도 학교 사업)을 제안하였다. 「직업교육훈련 영역」과 관련해서는 총 4개의 프로그램(한-라오스 직업훈련원 역량 강화 사업, 특별경제구역 직업훈련원 건립 사업, 직업훈련원 교사 역량 강화 사업, 한국기업·라오스 직업훈련원 산학협력 촉진 사업)을 제안하였다. 「고등교육 영역」과 관련해서는 총 3개의 프로그램(국립대 교수역량 강화 사업, 이공계 학과 리모델링사업, 대학교육역량 강화 사업)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제6장에서는 제1~5장에서 제시된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라오스 교육분야 개발협력 사례가 우리나라의 교육분야 개발협력의 방향과 추진 방식을 개선하는 데 주는 시사점을 제시하였다.